

“기능 못하는 연금… 개혁 위해 ‘준공적연금화’ 필요”

‘퇴직연금 개혁’ 정책 토론회
“OECD 국가처럼 층별로 기능분리
지배구조의 혁신 함께 이뤄져야”



16일 김동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왼쪽부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오건호 내
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 김형탁
노동경제연구원 플랫 운영위원이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
석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유튜브 화면 캡처

중간층 이상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성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퇴직
연금의 준공적연금화란 퇴직금에서 퇴
직연금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의무
화하고, 퇴직연금 급여는 단계적으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
은미 정의당 의원 주최로 ‘퇴직연금 개
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연금은 운영 수익률이 매우
낮고, 대부분 은퇴 시 연금이 아닌 일시
금으로 수령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금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국민연금 같은 기
초연금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을 공적연
금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관리
하고, 두 연금을 통해 70%에 가까운 소
득대체율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 층별로 제대로된 기능 분리 이 뤄져야”

토론회는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
수의 ‘현 퇴직연금제도의 한계와 준공
적연금화 전략’ 발표로 시작됐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3층의 다층
체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갖추고 있
다. 1층에는 일반조세로 재원이 조달되
는 기초연금, 2층에는 노후소득보장제
도의 중추로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
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3층에
는 서구의 기업연금에 해당하는 퇴직연
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더해 임의가입이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최상층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층별로 기능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1층의 기초연금은
생계 급여 수준이 보장돼야 하지만 1
인 가구 생계 급여 58만원에 못 미치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2층의 국민연
금에는 저축·보험·소득재분배 기능이
혼재돼 있다. 3층의 경우 OECD로부터
연금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름만 연금일 뿐 사외적립식 퇴직금
처럼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령액 기준으로 73.7%, 계좌 기준으로

97.3%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
령되고 있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기
지출비용의 노후소득보장제원을 활용
하고 ▲사각지대의 축소와 미래 재정
지출 통제를 위해 퇴직연금의 준공적연
금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
험료 수입의 71%에 달하는 퇴직연금
보험료가 정책 목표대로 연금화되면 국
가는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소득보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더 많이 확
보할 수 있게 되며, 지금보다 가입 근로
자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면 가입률이 50%에 못 미치는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대거 들어오게
된다”며 “일반 근로자의 60% 이상이 국
민연금과 퇴직연금의 ‘2종 세트’를 통
해 노후소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사회 보장형 공제 지원 필요”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정규 노동자로서
노동3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퇴직연
금 가입을 강제하기 쉽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들도 고려해야 한다”며 “노동자
들 스스로 사회보장형 공제나 이에 대

한 정부 지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김형탁 노동경제연구원 플랫 운영위원
은 퇴직연금이 준공적연금으로 기금화
되면 지배구조의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운영위원은 “퇴직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영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지배구조를 가질 수 있다”며 “퇴직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체
계와 함께 영역특수적 논의를 할 수 있
는 거버넌스 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우
리나라 퇴직연금은 임금상승률에도 미
치지 못하는 저수익률 상태 지속으로
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며 “낮은 수
익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형 제도
로 전환과 DC형 연금의 지배구조 개혁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
지와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어
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합의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전 부품 일괄생산 능력으로 모듈부문 진출

IPO 간담회

아스플로

韓 중심으로 시공시장 입지 공고화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 중인 강
두홍 아스플로 대표이사.

반도체 공정가스 부품소재 기업인 아
스플로가 내달 7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강두홍 아스플로 대표이사는 16일 온
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의 반도체
시장에서 펌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장비사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한국을 중심으로 시공시장 입지를 공
고화하고, 장비 부품과 모듈 시장으로
진출해 글로벌 톱 브랜드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스플로는 2001년에 설립된 후 중
소구경 시공 시장 부품을 주력으로 공
급해 온 기업이다. 시공 시장이란 주로
가스공급소에서 가스정제·분배기까지
이르는 배관 라인을 일컫는다. 아스플
로는 2005년부터 삼성전자, 2006년부터
SK하이닉스 1차 벤더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시공부품 매출 중 70% 정도는 삼
성과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하고, 나머

지 30%는 일본과 대만, 미국 등지에서
발생한다. 현재 새로운 니즈에 맞춰 대
구경 시공부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한 상태다.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22개 소부장 으뜸기업에 들면서 하반기
부터 4년 동안 120억원의 정부 연구개
발비를 지원 받을 예정이기도 하다.

미래 사업은 반도체 장비용 부품과
모듈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해 갈 계획
이다.

강 대표이사는 “장비부품 시장과 모
듈 시장은 5조원 규모인 데다 영업이익
률이 30%에 달한다”며 “이 부문 사업은

어떻게 확장해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봐서 회사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소자 생산 설비에 들어
가는 장비용 부품 부문엔 4년 전부터 진
입한 상태다. 다만 기술 확보 외 사용 실
적이나 시행착오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
어서 자체 브랜드화를 목표로 현재는
일본과 미국 선진기업들에 부품 OEM
을 납품하고 있다. 사측은 현재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
리얼즈의 부품 공급자 등록을 마친 상
태로, 올 하반기나 내년에 OEM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부품 일괄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모듈 부문에도 진출한다. 아스플로는
밸브, 튜브, 레귤레이터, 필터 등으로 구
성된 모듈 제품 및 튜브와 진공부품을
연결한 파이프 모듈 제품을 시장에 일부
공급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아스플로의 지난해 연
결 기준 매출액은 447억99683만원, 영
업이익은 47억8093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34%, 50% 상승했다.

/양유경 기자 noon@

KB증권, 행복한 기업문화 조성 노력

‘CEO 공감소통’ 운영

KB증권이 임직원들의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이색적인 기업문화 프로그
램을 시행하고 있다.

KB증권은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소
통이 가능한 직장 분위기를 요구하는

MZ세대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대표이
사 메시지와 기업문화 관련 콘텐츠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표현한 ‘CEO 공감
소통’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진의 메시
지 뿐만 아니라 젊은 끈대, 직장 내 굿기
어 사전, 갑질문화 타파 등 조직 구성원
이 공감할 수 있는 기업문화 메시지를

담아 많은 직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또 세대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MZ세대 직원들과 대표이사가 함께 진
행하는 ‘CEO 타운홀 미팅’도 매년 상·
하반기에 각 1회씩 진행하고 있다. 일반
적인 타운홀 미팅과 차별을 두기 위해
MZ세대 패널리스트가 직원 대표로 참가하
여 대표이사와 함께 진행하는 토크쇼
방식으로 7080 노래 맞추기, 신조어 퀴
즈 등을 진행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전자등록 관리자산 현황 (2021.8.31. 기준)〉

(단위: 조원)

| 주식 | 채권 | 집합투자증권 | 단기금융증권 | 파생결합증권 |
|---------------------|------|--------|--------|----------|
| 상장 | 2778 | 상장 | 4 | 단기사 채 |
| | | | | 59 |
| 비상장 | 14 | 비상장 | 808 | CD |
| | | | | 16 |
| 소계 | 2792 | 소계 | 812 | 소계 |
| | | | | 75 |
|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 총 합계액 | | | | 6156 |

주1) 상장주식·채권 및 ELW·ETN은 시가총액, 그 외 증권은 액면가 기준 /예탁원
주2) 집합투자증권은 순자산가치(NAV)를 반영한 순자산총액(ETF는 상장주식으로 분류)

‘전자증권제도 2년’… 잔고 전년비 21% ↑

주식 발행 회사 9.4% 증가

실물 대신 전자로 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
(2019년 9월 16일)된 지 2년이 지나면
서 전자등록 관리자산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전자로 등록된 관리자산의 잔고
는 꾸준히 늘었다. 올 8월 31일 기준 총
자산은 6156조원으로 전년(5101조원)
대비 20.7%, 2019년(4780조원) 대비
28.8%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해 주식을 발행
하는 회사는 2831개사로 전년(2588개
사) 대비 9.4% 늘어났다. 이 중 상장회
사는 2457개사(유가증권816개사, 코스
닥 1507개사, 코넥스 134개사)였고, 비
상장회사 374개사였다.

상장회사와 달리 신청을 통해 전자증
권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상장회사의
참여율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참가회
사 수는 374개사이며, 제도 참여율은
12.8%로 전년(8.4%) 대비 4.4%p 증가
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주식 보유현

황 등을 기록한 소유자명세를 분기별로
작성할 수 있게 된 후 제도 이용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년 간 분기별
소유자명세 작성을 신청한 회사 수는
999개사, 작성 건수는 2164건으로 전년
(773개사, 1140건) 대비 각각 36.2%,
89.8% 증가했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비상장회사에 대한 수수
료 면제 및 감면조치를 지속적으로 시
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장회사의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및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는 각
각 오는 2024년과 2022년까지, 증권대
행 기본수수료 20% 감면은 오는 2024
년까지 이어진다.

이외에도 예탁원은 온라인 홍보·교
육 콘텐츠를 배포하고, 비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일례로 기발행 주권을 전자
증권으로 전환하는 발행인에게 1개월
이상의 공고·통지(전자증권법 제27조)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양유경 기자